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 독립영화의 출발을 조명하다, 1980년대 대학 영화서클 특별전 개최

한국영상자료원,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영화서클' 특별전 개최
 독립영화사 주요작 <시발>, <선생님 그리기> 4K 복원 최초 공개
 한국영화를 만든 목소리들, 객재용, 변영주, 장윤현, 공수창 감독이 말하는
 영화서클 대담 및 특별 강연 마련



▲ 기획전 '영화서클'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1월 31일(토)부터 2월 12일(목)까지 시네마테크 KOFA(상암동 소재)에서 '영화서클'을 개최한다. 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와 영상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는 국내 유일 공공 영상 아카이브이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 활용하여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 역시 영상자료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이번 기획전은 영상자료원이 현재까지 수집, 발굴, 복원해온 1980년대 영화서클 제작 작품 16편을 상영함으로써 한국영화사의 주요 사건과 행위자들과 맞물려 형성된 영화서클의 역할과 작품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시발>, <선생님 그리기>의 4K 복원판을 최초 공개하고, <출구>, <목격자>, <광장> 등 2000년대 이후 유실작으로 분류돼 왔던 작품들을 처음으로 상영한다. 특별 부대행사로는 영화서클의 주요 행위자였던 객재용, 변영주, 장윤현, 공수창 감독이 참여하는 대담과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 <시발> 스틸



▲ <선생님 그리기> 스틸



▲ <국풍>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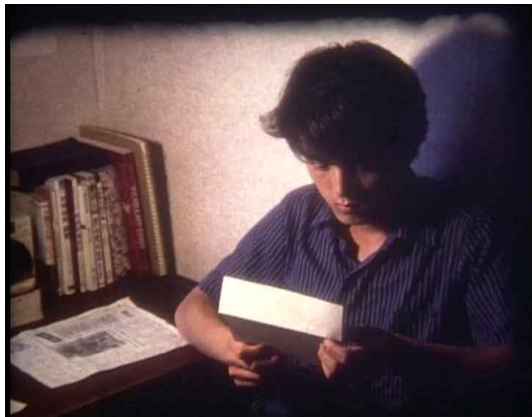
▲ <배추흰나비> 스틸

□ 1980년대 대학 영화서클 작품 16편, 저항과 실천의 출발점

학생운동의 시대라 불리는 1980년대, 대학 서클은 정치·사회적 억압 속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실천이 이루어지던 주요 공간이었다. 그중에서도 영화서클은 군사정권의 검열 아래 제도권 한국영화가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던 시기, 당대 현실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대안적 창작의 장으로 기능했다.

대학 영화서클들은 1979년 모집 공고를 거쳐 1980년 정식 결성된 서울대학교 '알라성 영화연구회'를 필두로 형성되기 시작해, 1983년에는 고려대학교 영화연구회 '돌빛'의 결성으로 이어진다. 이후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듬해 대학 내 서클 조직 규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1984년 '제1회 작은영화제(작은 영화를 지키고 싶습니다!)'와 1985년 영화마당우리 주관의 '작은영화워크숍'의 성료와 맞물려 대학 영화서클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이 흐름 속에서 1985년을 전후해 경희대 '그림자놀이', 명지대 '필름 아트', 서강대 '영화공동체', 성균관대 '영상촌', 연세대 '연세영화페', 한국외국어대 '울림', 이화여대 '누에', 한양대 '소나기', 한성대 '활사페', 홍익대 '빛의 소리', 상명여대 '얼래', 인천대 '영화연구회' 등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번 '영화서클' 기획전은 영상자료원에 기증·수집된 대학 영화서클 8개처의 제작 작품 16편을 상영함으로써, 1980년대 대학 영화서클의 활동과 작품 세계를 통해 이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이후 한국 영화운동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 <광장> 스틸



▲ <인재를 위하여> 스틸



▲ <부활하는 산하> 스틸



▲ <목격자> 스틸

□ <시발>, <선생님 그리기> 등 한국 독립영화사 주요작 4K 복원 최초 상영

이번 기획전에서는 영화서클의 주요작이자 한국 독립영화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아온 작품들을 4K 복원 버전으로 최초 상영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영화패 '누에'의 1985년 창립작 <시발>은 1980년대 대학 영화서클 작품 가운데 최초로 16mm 필름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대학 영화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의제를 정면으로 다룬 점에서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아온 작품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화여대 영화패 '누에'가 기증한 16mm 필름 유일본을 2025년 4K 해상도로 디지털화한 버전을 최초 공개한다.

곽재용 감독의 <선생님 그리기>는 이후 <비 오는 날의 수채화>(1989), <엽기적인 그녀>(2001) 등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곽재용 감독의 데뷔작이다. 1985년 제11회 한국청소년영화제(현 서울독립영화제) 우수상 수상작으로, 이번 기획전에서는 곽재용 감독이 기증한 16mm 프린트 필름을 2025년 4K 해상도로 디지털화한 버전을 최초 상영한다.

이 밖에도 고려대학교 영화연구회 '돌빛'의 <목격자>, 홍익대학교 '빛의 소리'의 <배추흰나비>, 연세대학교 '연세영화패'의 <광장>, 서울대학교 영화연구회 '알라성'의 <출구> 등, 80년대 제작되어 90년대까지 상영된 이후 공식 상영 이력이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져 온 독립영화사의 주요작들을 함께 상영함으로써, 한국 독립영화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시기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연세대학교 '연세영화패'의 <부활하는 산하>는 1986년 연고전/고연전 학술문화제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기획하고 연세영화패가 제작한 기록영화다. 최초 상영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이데올로

기 서적인 『계급투쟁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관계자 검거령이 내려졌다. 이후 제작 배후로 서울영상집단이 지목되며 '파랑새 사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독립영화계에 중요한 논쟁을 촉발했으나, 필름 유실로 인해 오랫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했다. 2025년 발굴·복원된 디지털화본을 통해 이번 기획전에서 상영된다.

□ 한국영화 주요 감독 박재용, 변영주, 장윤현, 공수창 감독 시네토크 등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이번 기획전은 1980년대 영화서클의 작품들을 단순히 정전의 반열에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대담(GV·시네토크)과 특별 강연을 통해 그 의미를 현재의 시점으로 확장한다.

개막일인 1월 31일(토)에는 <광장>과 <부활하는 산하> 상영 후 유운성 영화평론가의 진행으로, 당시 기획을 맡았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 강원호, 연세대학교 '연세영화페'의 일원으로 제작을 맡은 이정하, 이수정 감독,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안훈찬 프로듀서와의 대담이 열린다. 같은 날 <목격자>, <1987년 애국학생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배추흰비> 상영 후에는 박진희 영화연구자의 진행으로, 고려대학교 영화연구회 '돌빛' 출신인 정병각 감독, 김시천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공공배급망센터 소장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2주차인 2월 6일(금)에는 <부활하는 산하> 상영 후 백문임(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연세영화페·프 로메테우스 지도교수)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같은 날 <인재를 위하여> 상영 후에는 황민진 시네마 테크KOFA 프로그래머의 진행으로, 한양대 영화연구회 '소나기'에서 만나 장산꽃매의 <오 꿈의 나라>(1989), <파업전야>(1990)를 거쳐 <텔미썸당>(1999), <알포인트>(2004)까지 협업을 이어간 장윤현 감독, 공수창 감독 대담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월 7일(토)에는 <선생님 그리기>, <독주, 모래성>, <안전선> 상영 후 백태현(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의 강연과 함께 공영민 영화사연구자의 진행으로 박재용, 변영주 감독과의 대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같은 날 <시발>, <영화운동의 함성>, <이화뉴스> 상영 후에는 변영주 감독의 진행 하에 황혜란, 이현주 감독과의 대담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월 12일(목)에는 <국풍>, <섬>, <그들도 우리처럼>, <출구>를 상영하고 김수연 영화연구자의 강연과 함께 김홍준, 박광수 감독과의 대담이 진행된다.

이번 기획전은 1980년대 영화서클이 제작한 작품들을 상영함으로써, 영화서클이 영화를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문제의식과 한국 영화사의 주요 사건과 행위자들과 맞물려 형성된 영화서클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그간 충분히 다루지지 않았던 영화서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한국 독립영화사의 누락된 지점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상영일정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 영화서클 >

- 일 정: 2026년 1월 31일(토) ~ 2월 12일(목)
- 장 소: 시네마테크KOFA 2관
- 상영작: 총 16편

제명	제작년도	제작	비고
국풍	1981	서울대 영화연구회 알라성	2K
섬	1981		4K
그들도 우리처럼	1982		4K
출구	1982		베타캠 디지털화본 최초상영
목격자	1984	고려대 영화연구회 돌빛	베타캠 디지털화본 최초상영
1987년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촬영 원본	1987		2K 최초상영
선생님 그리기	1985	경희대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	4K 최초상영
독주, 모래성	1985	명지대 필름아트	2K 최초상영
안전선	1987		2K 최초상영
광장	1985	연세대 연세영화패	베타캠 디지털화본 최초상영
부활하는 산하	1986		2K
시발	1985	이화여대 영화패 누에	4K 최초상영
이화뉴스	1988		베타캠 디지털화본
영화운동의 함성	1989		베타캠 디지털화본
인재를 위하여	1987	한양대 소나기	베타캠 디지털화본 최초상영
배추흰나비	1987	홍익대 빛의소리	4K 최초상영

※ 시네토크

- 1월 31일(토) 14:00 <광장>, <부활하는 산하> 상영 후 (참석자: 이정하 감독/평론가, 이수정 감독, 변재란 교수, 안훈찬 PD, 강원호, 유운성 영화평론가)
- 1월 31일(토) 17:30 <목격자>, <1987년 애국학생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배추흰나비> 상영 이후 (참석자: 정병각 감독, 김시천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공공배급망센터 소장, 박진희 영화연구자)
- 2월 6일(금) 19:00 <인재를 위하여> 상영 후 (참석자: 장윤현 감독, 공수창 감독, 황민진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래머)
- 2월 7일(토) 13:30 <선생님 그리기>, <독주, 모래성>, <안전선> 상영 후 (참석자: 곽재용 감독, 변주현 감독, 공영민 영화사연구자)
- 2월 7일(토) 17:00 <시발>, <이화뉴스>, <영화운동의 함성> 상영 후 (참석자: 변영주 감독, 황혜란, 이현주 감독)
- 2월 12일(목) 18:00 <국풍>, <섬>, <그들도 우리처럼>, <출구> 상영 후 (참석자: 김홍준 감독, 박광수 감독, 김수연 영화연구자)

※ 강연

- 2월 6일(금) 16:00 <광장>, <부활하는 산하> 상영 후
강연자: 백문임(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연세영화패-프로메테우스 지도교수)
강연주제: '부끄러움'과 '찬사'의 집단창작, <부활하는 산하>

- 2월 7일(토) 13:30 <선생님 그리기>, <독주, 모래성>, <안전선> 상영 후
강연자: 백태현(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연주제: 1980-90년대 영화 문화의 또 다른 장소: 대학 영화 동아리의 실천과 기록
- 2월 12일(목) 18:00 <국풍>, <섬>, <그들도 우리처럼>, <출구> 상영 후
강연자: 김수연(영화연구자)
강연주제: 1980년대 초기 영화서클과 작은영화의 수행성